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오는 21일 첫 삽 뜬다

‘시민불편’ 고려 우선시공 구간 선정 대담대로 시작... 1단계 2023년 개통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오는 21일 첫 삽을 뜬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이 늦어진 2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5개 공구 공사가 21일부터 시작된다. 시는 지난달 5일 기공식 이후 각 공구별 시공사와의 공사계약 체결, 구간별 도로 굴착·점용 허가,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우선시공 구간을 선정했다.

시공구간은 도시가스 등 지하매설물이 없고 공사로 인한 교통혼잡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고려·선정했다. 주요 거점지역보다는 교통통행량이 상대적으로 덜한 지점에서부터 공사를 시작한다.

공구별 우선시공 구간은 1공구는 상무중앙로 유덕교차로 주변, 2공구는 금화로 월드컵경기장 사거리 주변, 3공구는 월드컵서로 월드컵경기장 입구다. 4공구는 대남대로 미래아동병원 주변, 5공구는 필문대로 지산사거리 주변, 6공구는 필문대로 산수오거리 주변이다.

현재 백운고가 철거작업과 함께 진행 중인 4공구 공사를 21일 먼저 시작하고, 나머지 공구는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들어갈 계획이다. 2공구는 착공계를 내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광주시는 조달청의 종합평가를 거쳐 1공구 롯데건설 컨소시엄, 2공구 한신공영 컨소시엄, 3공구 태영건설 컨소시엄, 4공구 한라 컨소시엄, 5공구 한화건설 컨소시엄, 6공구 경남기업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각각 선정했다.

1공구는 차량기지~운천저수지 구간으로 공사비 1,224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2공구는 운천로~월드컵경기장 앞 구간으로 공사비는 1,047억 7,000만원이다. 3공구는 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 인근 구간으로 공사비 1,195억원, 4공구는 백운광장~광주천 인근으로 993억6,000만원의 공사비가 투입된다.

광주천~살레시오역과 인근 5공구는 1,055억 6,000만원, 살레시오역~효동초 사거리 6공구는 1,190억4,000만원의 공사비가 들어간다.

시는 공사기간 교통혼잡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방송·전광판·현수막 등 교통상황 안내, 차량점유 최소화, 우회로 확보, 신호체계 변경 등의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은 순환선으로 시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광주역~전남대~침단지구를 지나 다시 시청으로 이어지는 총연장 41.8km 구간에 정거장 44곳, 차량기지 1곳을 짓는 사업이다.

공사는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며, 오는 2023년 개통 예정인 시청에서 광주역을 잇는 1단계가 먼저 착공에 들어간다. /황애란 기자



수능 D-31...간절히 기도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31일 앞둔 14일 오전 광주 무각사에서 수험생을 둔 어머니들이 자녀의 수능 고득점과 대학합격을 기원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조국, 사퇴... “검찰개혁 불쏘시개 역할 여기까지”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오며 관계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필생의 사명’ 완수 가능한 시간 왔다 생각”

“대통령·정부 부담 안돼... 온 가족 만신창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35일 만인 14일 사의를 전격 발표했다. ▶관련기사 4면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사직의사를 밝혔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은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추구해왔던 목표였다”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는 “더는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줘선 안 된다.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고 언급했다.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과 검찰수사가 사퇴 배경이었음을 명확하게 밝혔다. 조 장관은 “가족수사로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며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들께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돼 힘들고 무척 고��스러웠다”면서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입은 가족들에게 더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고 검찰수사에 대한 심정을 직접 밝히기도 했다.

조 장관은 취임 이후 추진했던 검찰개혁과 관련,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됐다. 어느 정권도 못한 일이다”고 평가한 뒤,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국민들 덕분이다. 국민들은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서울=강병윤 기자

광주세계수영대회 레거시 사업 ‘잔결음’

수영진흥센터 등 9개 사업 확정

광주시가 2019광주세계수영대회 기념유산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한국수영진흥센터 건립과 가칭 무등배수영대회 창설 등 9개 사업을 선정하고 대한수영연맹·문체부와 협의를 통해 기념사업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기념유산사업 추진을 통해 광주를 명실상부한 ‘수영도시’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레거시 개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9개

의 기념유산사업을 확정했다.

기념유산사업은 ▲한국수영진흥센터 건립 ▲국제스포츠타워 기념관 건립 ▲(가칭) 무등배수영선수권대회 창설 ▲(가칭) 무등배마스터즈수영대회 창설 ▲수영대회 타입캡슐공원 조성 ▲수영선수권대회 교육자료 개발 ▲수영 네트워크 구축 ▲엘리트 수영선수 육성 생태계 조성 ▲공공수영장 확충(수리담이 야외수영장 건립) 등이다.

시는 9개 사업 중 한국수영진흥센터 건립과 (가칭) 무등배수영대회 창설을 우선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2면으로 이어짐 /황애란 기자

CEO경제아카데미 양향자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특강

3면

김삿갓도 반한 국화동산에서

2019 화순 국화향연

2019.10.25.(금) - 11.10.(일)
화순읍 남산공원 열원 17일간